

조선대, 내년 글로벌대학 선정 총력

구성원 대상 간담회·초청 특강 미션정 원인분석 등 의견 공유

조선대학교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2025년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제도전한다.

24일 조선대(총장 김춘성)는 최근 캠퍼스 서석홀에서 '2025 글로벌대학 추진을 위한 구성원 간담회와 초청특강'을 진행했다.

올해 글로벌대학 미션정 원인을 냉철히 분석하고 내년 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Glocal, Global+Local)대학 30' 사업은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 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순천대가 지난해 최종 지정됐고 올해 전남대와 목포대가 예비 대학에 선정됐으나 조선대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대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글로벌대학 사업의 추진 경과와 자체분석 결과를 돌아보고, 자문위원의 주요 분석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선대는 올해 글로벌 대학30 공모에서 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 등 지역 4개 대학과 연합대학을 꾸려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나 예비대학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년 글로벌 대학30



조선대가 최근 개최한 '2025 글로벌대학 추진을 위한 구성원 간담회' 참석자들이 글로벌 대학 재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대학 선정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라면서 "현재 조선대는 올해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지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조선대는 자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글로벌대학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비전과 목표 설정을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주요 처장단과 단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성화-지산학 연계-지속가능 방안 등의 주요 전략방향을 신속히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글로벌대학 준비과정이 동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다.

초청 강사인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부총장은

'글로벌대학과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미래시에 대비하는 대학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교육부 글로벌대학위원회 자문위원인 박 부총장은 특강에서 "글로벌대학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청년이 지역의 대학을 나와,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춘성 총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 글로벌대학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미션정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에 꼭 선정돼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학생 주도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열린다

광주시교육청, 7월 2~8일 신청...10월 12일 본선 무대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주도 오디션 프로그램인 '제2회 광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광탈페'는 예술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 주도형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광주고등학생의 회가 중심이 돼 학생들이 주인이 돼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처음 개최된 지난해, 광주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해 광주교육 가족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광탈페'는 더 큰 규모와 지원으로 확대 운영된다. 학생들의 신청 수요를 반영한 K-Pop 댄스, 밴드, 보컬, 연주,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공연 기회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을 통해 선정된 우수팀은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광탈페)'에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광탈페'가 광주의 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물론 K-Culture를 대표하는 예술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은 오는 7월 2일부터 8일 22시까지 구글폼(https://url.kr/hk9ybg)으로 가능하다. 예선(오디션)에 통과한 참가자는 오는 10월 12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무대에서 펼쳐는 본선에 참가하게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암 미암초·학산초 학생들이 학산초에서 '밀 구워먹기'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 작은학교 뭉쳤다" 53개 초교 공동교육

인근 초교 협력 다양한 교육활동

전남교육청이 작은학교의 지역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53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교육과정은 학생 수가 적어 예체능이나 토의·토론 수업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 초등학교들이 협력,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편성·운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영암 미암초등학교와 학산초등학교는 학년·주제별로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미학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미학 공동교육과정은 배움의 날, 어울림의 날, 생태의 날 등 세부 실행 계획별로 2026년 2월까지 운영된다.

최근 장성 서삼초등학교와 약수초등학교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선언했다. 내년 2월까지 두 학교가 함께 할 다양한 교육활동 계획을 나누고 2학기 배움의 목표를 설정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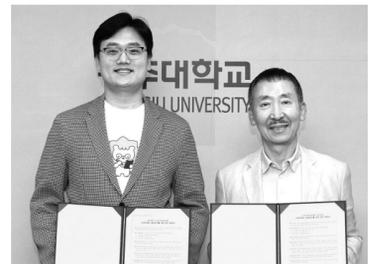
광주대, 한국금형산업진흥회와 스마트제조 업무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왼쪽)는 지난 21일 교내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회장 박화석)와 스마트제조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스마트제조와 관련한 인력양성 공동교육을 비롯해 기술 정보 공유, 기술개발 연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진 총장은 "실질적인 산학 교류를 통해 기술 지향적이며 미래 전망이 밝은 금형산업의 매력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박화석 회장은 "산학 간 인프라를 활용한 진정성 있는 협력과 보완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서"선택과 집중,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 및 인재 양성으로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자"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中 청도·북경지역 대학들과 국제교육 확대 논의

북경이공대·북경어언대학 방문 유학생 유치·복수학위·해외인턴 등

전남대학교가 글로벌대학30 핵심전략 중 하나인 글로벌 거버넌스 확장을 위해 최근 중국대학들을 잇따라 방문해 국제교류 성과를 거뒀다. <사진>

24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방문단은 최근 중국 청도와 북경지역을 찾아, 각 대학 관계자들과 유학생 유치와 복수학위, 해외 인턴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확대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먼저, 청도지역에서 전남대는 글로벌교육기관인 중국상해합작경제무역학원과 업무협의를 갖고, 비학위 MBA합작과정 개설과 우수유학생 유치를 집중논의했다. 비학위 MBA합작과정의 경우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독립국가연합 또는 중국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국 장강도 2학년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 입학설명회를 열어, 전남대 유학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북경지역에서는 자매대학인 북경이공대학과 북경어언대학을 방문하며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복수학위 프로그램 추진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직원과견 등 다양한 교류방안이 나왔다.



특히, QS세계대학 랭킹 373위에 빛나는 명문대학 북경이공대학과는 교환학생 파견,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며, 광주전남 고교생 20여 명을 선발해 방학기간 중국 현지에서 중국어 기초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확정지었다.

이 프로그램은 북경이공대학에서 기숙사와 언어교육, 문화체험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전남대 추천 고교생들은 왕복항공료와 식비, 비자비용만을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대 글로벌대외협력처는 광주·전남교육청과 업무협의를

를 거쳐 학생들을 추천할 계획이다.

또 북경 최고의 중등교사 양성 교육기관인 수도사범대학과 신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하고, 어문학 계열을 중심으로 복수학위 확대를 위한 세부 업무협의를 완료했다.

국민석 글로벌대외협력처장은 "전남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계를 열어가는 글로벌 인재육성대학으로, 전남대의 글로벌대학30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